

2011.06.20 미래정책연구실

※ 본 자료는 지난 6월 10일에 개최된 「물가 관계장관 회의」 결과 중 농업분야 대책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.

□ 최근 물가여건

- 지난해 4/4분기 이후 물가상승압력이 확대되면서 금년 들어 소비자 물가가 4%대의 높은 상승세 지속
- 최근 들어 농산물 가격 안정으로 서민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가격이 크게 하락하였으나, 가공식품과 외식비 인상 등으로 근원물가는 전월에 비해 상승하는 등 수요측면의 물가압력이 커지고 있음. 또한,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물가여건의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음.
- 특히, 돼지고기 가격은 구제역의 여파에 따른 국내산 공급량 감소로 급상승함. 반면, 소고기는 한우 사육두수 과다와 구제역으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가격이 크게 하락했음.
 - ※ 삼겹살 소비자가격 : ('11.1) 8,902원/500g → (5월) 10,691 → (6.9) 12,212
 - ※ 한우지육(전국도매시장평균) : ('11.1) 15,285원/kg → (5월) 11,770 → (6.9) 11,593
- 서민밀집 품목인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불안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

□ 주요 내용

- 돼지고기 가격 안정 및 한우고기 소비 확대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.
- 첫째,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이 예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수입냉장 삼겹살을 수입업체 등을 통해 입찰 구매하여 판매업체 등에 직접 공급기로

하고 손실 발생시 정부가 보전하기로 함.

- 둘째, 돼지고기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군 급식 돼지고기를 한우 고기로 대체 공급하여 돼지고기 수요억제를 통한 가격 안정과 함께 소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.
- 셋째, 구제역 당시 수매하여 비축중인 냉동 돼지고기 848톤을 농협중앙회를 통해 시중에 조기 공매기로 함.
- 넷째, 하반기에도 13만톤의 돼지고기에 대해 할당관세를 계속 적용하여 돼지고기 수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.
- 다섯째, 현재 가격이 하락한 한우고기를 반값에 할인판매하여 한우고기 소비를 늘리는 한편, 상대적으로 비싼 돼지고기 수요를 대체하도록 유도함.
 - 농협, 한우협회와 협력하여 6월 11일부터 휴가철인 8월말까지 한우불고기를 전년말 대비 반값 수준인 16,900원/kg에 판매할 계획이며, 판매물량은 4만두분 판매를 목표로 하되 상황에 따라 확대할 수 있음.

※ 본 자료는 지난 6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「농어업분야 고유가 대책 마련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.

□ 개요

- 유류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산업구조를 체질적으로 개선
-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시설 보급을 확대
- 에너지절약을 위한 R&D 투자규모도 확대

□ 주요 내용

- 에너지 절감율이 78%에 이르는 **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면적**을 '10년 223ha에서 '20년까지 4,453ha(누계, '09 가온면적의 30%)로 대폭 확대
 - **지열설치비 지원대상을 유리온실 이외에 축사나 양식장까지 확대**하며, 지열에 비해 투자비가 2/3 정도 덜 드는 **공기열 난방 시설**도 경남·제주·전남 등 외기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3개 시·도에 신규로 지원
 - ※ 올해에는 전라남도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보급
 - 면세유 사용량이 많은 농가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설치하지 않을 경우 면세유 공급량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
 - 연간 면세유 사용량이 50만ℓ 이상인 사용농가에 대해서는 '15년까지 **지열 난방시설**을, 연간 면세유 사용량이 10만ℓ 이상 50만ℓ 미만인 농가는 **다점보온커튼, 지열, 공기열 난방시설**중 1개를 설치하도록 하되 '15년까지 설치하지 않을 경우 연차적으로 면세유 배정량을 점점 축소해 나갈 계획

- 에너지 절감율이 46%인 **다점보온커튼** 등 에너지절약시설 보급면적을 '09년 813ha에서 '20년까지 12,349ha(누계, '09 가온면적 14,696ha의 84%)로 확대
 - 온실 현대화를 위해 '18년까지 총 100개 원예전문생산단지에 대해 온실 증개축 및 시설현대화를 지원함. 평가를 거쳐 3회 연속 최우수 평가단지는 증개축 지원규모도 현재 기존 온실면적의 30%에서 앞으로는 100%까지 확대함. 2회연속 평가성적이 저조한 단지는 온실 증개축 및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
 - ※ 원예전문생산단지평가 : 최우수, 우수, 일반, 저평가 등 4개 등급
 - 농가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연간 유류비를 18% 정도 절약할 수 있는 난방기 관리요령 등을 적극 실천하도록 홍보할 계획
- 에너지절약 및 고효율 보온자재 기술 개발을 위해 R&D 투자규모도 '11년 10억원에서 '20년 50억원까지 확대